

##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정유석(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곽은경(고려대학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속에 존재하는 집단으로, 상징을 통한 정치화가 상당하다. 북한은 김일성의 권력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일혁명전통’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목적하는 상징정치를 생산하였고, 후계자들 — 김정일, 김정은 — 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에 따라 그들만의 상징정치를 재생산해오고 있다. 특히, 3대 세습자 김정은은 활발한 현지도를 통해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정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의 현지도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며 다양한 인물들과 접촉한 것이 특징이다.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현지도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곳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경향도 보인다. 김정은의 현지도를 통해 나타난 상징성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권력 정통성 확보를 위한 상징정치, 둘째, 관광정책과 선전전을 통한 상징정치, 셋째 과학기술우선 정책 추진의 상징정치, 넷째, 애민적 지도자 이미지 형성을 통한 상징정치이다. 폐쇄적인 북한을 예측하기 위해 북한이 연이어 공개하는 최고지도자의 현지도 속의 숨은 상징성 분석이 중요하다.

주제어: 현지도, 상징정치, 현지도 상징성, 김정은 관광정책, 북한 과학기술정책

## 1. 서론

2010년 9월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식적 후계자로 김정은이 지목되었다. 이듬해 12월 17일 자신을 후계자로 낙점했던 아버지 김정일의 급사료, 만 서른도 안 된 김정은은 충분한 후계수업을 받지 못한 채 최고권력을 이양받았다. 근대사회 어느 곳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권력세습을 감행한 북한과 그 중심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김정은은 집권 초반의 혼란을 잠재우고 김정일 사망 2주일 만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거쳐 제1비서와 국방위원장의 권좌에 오르며 순조로운 권력 승계 행보를 이어갔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13년 12월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행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오랜 통치 방법이자 선진 도구인 현지도도를 분석하여 북한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김정은은 세습으로 얻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대와는 다른 자신만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열망은 북한 고유의 정치수단인 현지도도를 통해 발현되었다. 이 연구는 현지도도 동향을 분석하여 김정은의 북한을 예상해보고 그 안에 담긴 상징정치의 의미와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현지도도를 통해 상징정치 및 지도자가 위시하는 공간을 분석할 것이다.<sup>1)</sup> 북한의 현지도도는 북한 정치

에서 정책 실현의 주요한 도구이자 정치사회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요 기제이며, 국내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 현지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김정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집권 초기 4년으로 한정하였다.<sup>2)</sup> 현지도에 관하여는 연구자가 직접적인 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로동신문』의 ‘혁명활동보도’와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최고지도자 ‘동향’을 기초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sup>3)</sup> 다만, 분석 대상인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이에 관한 보도 자료가 없는 경우는 근거 자료에서 누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상징정치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중 특히 에델만(M. Edelman)의 상징이론을 북한에 적용시킨 이승현<sup>4)</sup>의 연구,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의 상징을 비교분석한 조현수<sup>5)</sup>의 연구, 북한의 상징정치를 상징화와 의례화의 과정으로 분류한 조은희<sup>6)</sup>의 연구를 주

- 
- 1) 이 연구에서 현지도의 범위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관여한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즉, 시찰(視察), 방문(訪問), 접견(接見) 등의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한다.
  - 2) 시기 비교·분석 연구는 연구대상 간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을 대조하여 궁극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가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3) 김정일 1998~2001년간 현지도 분석에 있어 이교덕과 한기범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여 『로동신문』 및 통일연구원 자료와 교차 분석하였다. 김정은 2015년도 현지도의 경우 9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이교덕, 『김정일 현지도의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02);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판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4) 이승현, “김일성·김정일의 상징정치: 구호와 상징조형물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2호(2012).
  - 5) 조현수, “상징과 정치: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의 상징에 대한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19권 제3호(2010).

목하였다. 조현수는 ‘상징’과 ‘권력의 정당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며 특히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학자들의 상징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정의는 상징과 정치를 다루는 여타 논문을 이해하고 북한 상징정치에 대한 연구의 기본 골격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은희의 연구에서 제4장 ‘혁명전통의 상징화 분석’의 공간상징 부분은 혁명전적지의 생성과 유지, 확대와 재창출의 과정을 정치시기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대입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보장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모델로 삼아 북한 최고지도자가 그들의 권력을 공간상징적으로 내보이는 행태를 집권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sup>7)</sup> 이 연구는 북한을 세로축, 즉 최고지도자 집권 초기 일정기간의 현지도도를 김정일·김정은으로 비교 분석하고 가로축, 즉 현지도도의 지역·장소 등 공간적 측면을 분석하였다는 데 새로운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 현지도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수행 빈도수에 근거하여 권력 엘리트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빈도와 시간 그리고 장소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김정은의 현지도도의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정책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북한의 수많은 공간은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으로 촘촘하게 짜여

---

6)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7) 이외에 북한 지도자의 개별적 성향이 그들의 정치적 특징과 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임재천(2014)의 연구, 1980년부터 1991년까지 김일성의 현지도도를 6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유호열(1994)의 연구, 현지도도와 북한체제의 정치권력구조를 연관하여 설명하는 홍민(2001)의 연구, 현지도도의 목적 개념을 제시한 이교덕(200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있다. 권력의 의도대로 공간이 형성되고 권력의 개입에 의해 공간이 양산된다. 공간을 지배함으로써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전복시키려는 움직임이다.<sup>8)</sup> 3대 세습체제를 완성시킨 김정은은 유훈통치의 명분 아래 최고지도자의 지배 권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징 공간은 핵심적 무대공간으로서 치장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북한의 상징공간은 북한의 지배권력이 만들어낸 북한 공간의 단면이자 북한의 독재적 권력의 반영이다. 3개월 후 집권 5년차를 맞이하게 될 김정은체제는 선대 김정일, 김정은의 공간상징의 정치를 이어받아 본인만의 다양한 영역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놀이공원과 북한식 워터파크인 물놀이장 등 위락시설을 많이 건설하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젊은 지도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를 추진력과 도전성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비되는 자신만의 상징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종 상징물 건설 등 전시성사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목적하는 정치적 상징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징정치에 대한 일반이론을 살펴본 후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김정일 현지도도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정은 집권 시작점을 2012년으로 설정하고 2015년 9월 30일까지의 현지도도 동향을 분석하였다. 두 인물의 현지도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현지도도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상징정치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북한 공간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현지도도를 통한 북한 상징정치 및 공간

---

8) 손은하·공윤경, “상징 조형물과 상징공간에 이미지화된 지역성: 마산의 ‘민주화의 성지’와 ‘문학의 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제17권(2010), 442쪽.

상징정치의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상징정치와 현지도

### 1) 북한의 상징정치

#### (1) 상징의 사회·정치적 기능

정치권력은 그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권과 구성원 간 깊은 공감대를 가져오는 상징을 사용한다. 정치적 상징은 모호하고 다의적이거나 동시에 다양한 개인을 매혹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모호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기능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상징이 정치권력의 의도를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체제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 상징이 세로의 축, 즉 역사적 잣대에 의거해 기능하게 될 경우 상징물은 과거의 사실을 권력이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현재 상황에 맞게 재구성되어 과거와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주고, 다시 '집단의 역사'로서 개인에게 전파된다. 개인에게 역사의 정치가 스며드는 것이다. 한편, 가로축의 축, 공간적으로 확장할 경우 상징은 산재되어 있는 개개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준다.

‘상징(symbol)’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심볼론(symbolon)’이다. 사전적 의미의 상징(象徴)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것.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標識)·기호(記號)·물건 따위”로 규정되는데, 엄밀히 따져 ‘기호(sign)’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개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상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고, ‘상징’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른 것을 알게 하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sup>9)</sup> 즉, 상징은 인간 개인이 개별적 객체에서 벗어나 집단·조직·사회와 연결되는 고리로 기능하며, 이 때문에 인간이 공유하는 상징적 상호작용<sup>10)</sup>은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통용단위가 된다. 통용단위로서의 상징은 집단적 소통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적 행동의 이해관계를 규정하게 된다.<sup>11)</sup> 특히 정치적 상징은 지배권력이 초기 획득한 그(들)의 권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동시에 권위 있는 양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뿐 아니라 상징행위 및 상징 재생산을 통해 지배권력의 질서를 정당화하고 피지배층이 그것을 내면화하도록 사회적 행동의 지침들을 규정해준다.<sup>12)</sup> 피지배층이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수용하거나 옹호하는 까닭을 정치적 상징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대중은 소수 권력이 그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 없이 상징적인 만족 — 정치도덕적 인센티브, 민족적 대단결, 내셔널리즘 등 — 이 부여되는 것만으로도 지배층에 기꺼이 권력을

9)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30115](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30115)).

- 10) “사회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다”라고 언급한 터너(Jonathan H. Turner)의 말처럼 상징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질서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개인들 간 다양한 동기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손은하·공운경, “상징 조형물과 상징공간에 이미지화된 지역성: 마산의 ‘민주화의 성지’와 ‘문학의 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422~423쪽.
- 11) 이종은, “상징과 정치적 권위,”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제17집 1호 (2011), 13쪽.
- 12) 부르디외(P. Bourdieu)는 상징을 지배문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배도구로서의 상징’의 재생산이 사회적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소통기능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은폐하고 기존 질서 전체의 정당화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조현수, “상징과 정치: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의 상징에 대한 비교분석,” 194~199쪽.

부여한다. 역으로 소수권력은 상징적인 만족을 부여하기 위해 물질적인 혜택 이외에 집단적 신념을 형성하고 이를 체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머럴만(R. Merelman)은 정치체제 초기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이익을 할당함으로써 구축되고, 사회구성원들의 만족감은 상징을 통해 강화된다고 언급하였다.<sup>13)</sup> 상징이 정당성의 대안적 토대, 희열, 그리고 만족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 (2) 북한의 상징정치

이처럼 정치는 상징을 선점하고 어떠한 상징체계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과하기 위한 투쟁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정치적인 상징은 압축된 형태로 특정한 의미를 생산·재강화한다. 상징과 정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국가권력의 권위는 정치의 기본 가치를 올바르게 지키는 능력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고, 사회 구성원을 매혹하고 그들의 내면을 사로잡는 기술에 달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비담(D. Beetham)과 거스필드(J. Gusfield)의 상징에 관한 논의<sup>15)</sup>를 북한에 적용해보면, 권

---

13) Richard Merelman, "Learning and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0, No.3(1966); 위의 글, 205쪽 재인용.

14) 이종은, "상징과 정치적 권위," 27쪽.

15) 비담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권력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당하다고 역설하였다. 첫째, 권력은 확립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행사되어야(법치) 하며, 둘째, 이 규칙은 정부와 피지자의 공유된 믿음의 의미에서 정당화되어야(법치국가, 인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for the people)) 하고, 마지막으로 정당성은 피지자의 동의의 표현을 통해 입증되어야(참여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 한다는 점이다. D. Beetham, *The Legitimation of Power* (Basingstoke: Macmillan, 1991); 조현수, "상징과 정치," 203~204쪽 재인용. 이는 거스필드의 논의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거스필드는 '응집의 상징(symbol of cohesion)'이 정부지지의 원천으로 사회 공통의 공감적인 측면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이용되며, 사회의 통합적인 요소들과 정치체제들의 정당성을 위한 토대들에 호소한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상징은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첫째, 주체사상이 규칙이 되어 행사되고, 둘째 수령유일지배체제라는 공유된 믿음으로 정당화된다. 셋째, 피치자의 동의의 표현은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무조건적인 충성이다. 또한 수령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지지의 원천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이 이용되고, 이는 수령의 정당성을 위한 토대로서 호소하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의 사상화는 전 인민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동원하기 위해 활용되며 이는 공간에 대한 상징을 수립함으로써 가시화된다. 북한 사회에서 상징은 다양하게 활용된다. 북한정치를 상징의 정치, 북한체제를 상징이 점철된 극장국가<sup>16)</sup>로 보는 시각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상징인류학자 기어츠(C. Geertz)는 ‘극장국가(theater state)’의 개념을 정치적 권위의 작동원리 파악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권력 및 정치체제가 물리적 강제력보다 상징적·연극적인 사회질서, 즉 상징적 권력에 우선한다는 것이다.<sup>17)</sup>

극장국가에서 왕은 제작자(겸 주연), 사제는 연출, 백성들은 조연, 무대 보조원, 관객이 되었다. 수천수만 명이 동원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례식, 기념식, 순례, 희생의식 등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목적 그 자체였고, 바로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였다.<sup>18)</sup>

---

파벌들의 정치적 갈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정부에 충성’을 동원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Joseph Gusfield, *Symbolic Crusad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조현수, “상징과 정치,” 204쪽 재인용.

16) 정병호는 상징인류학자 클리포트 기어츠(Clifford Geertz)의 ‘극장국가’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 정치권력의 문화적 작동원리를 살펴보고 있다.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2010).

17) Clifford Geertz, *Negar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13~15, 위의 글, 3쪽 재인용.

18) *Ibid.*, p.15, 위의 글, 3~4쪽 재인용.

기어치는 왕권의 사회적·우주적 중심성 과시를 정치적 권위의 바탕으로 삼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네가라(Negara)’를 극장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위 문장은 북한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수많은 인민이 의식행사에 동원되고 그것이 체제 존립의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북한 사회와 유사하다. 발리의 극장국가체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적 위신이라는 힌두 지배문화를 화려한 장관, 거대한 의식, 공식적 드라마로 연출함으로써 이를 초자연적 우주질서로 받아들이게 하였다.<sup>19)</sup> 북한체제 역시 그들의 정치에서 상징과 의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술과 음악, 기념비, 건축물 등 수많은 상징물뿐만 아니라 유교적 가족주의를 내세운 ‘아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 ‘사회주의 대가정’의 이미지,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토대로 한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개념과 영원성의 국가 패러다임은 북한이라는 사회가 상징적 개념체계, 이를 수사하는 레토릭, 이로써 구축된 믿음체계로 조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징적 국가성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민을 통치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한다. 강제적 집권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권력이 상징행위를 통해 의미성을 가지게 되는데, 인민에게 상징의 정치는 폭력적이지 않은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정통성 있고 성공적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19) 위의 글, 3쪽.

## 2) 북한의 현지도

### (1) 북한 현지도의 목적과 기능

현지도는 지도자의 정책노선을 표면화하는 수단 중 하나로,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주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의 현지도는 문자 그대로 관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히 따졌을 때 현지도의 주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현지도는 수령의 영도를 이상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자체로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현지도’를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sup>20)</sup> 현지도의 기본적인 목적 및 기능은 현장의 실태와 민심의 파악, 생산현장의 근로의욕 고취, 인민대중의 조직 및 동원, 섬세하고 자상한 인민의 지도자 이미지 강화, 수령의 절대적 능력 정당화<sup>21)</sup>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상징정치의 차원에서 현지도를 조명해보면, 전국을 찾아 지도하는 수령의 자애로운 이미지와 혁명에의 열정·인민에의 사랑을 인민 속

---

20) 유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1994), 199~203쪽; 이교덕, 『김정일 현지도의 특성』, 7~8쪽.

21)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입각해 수령과 인민대중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혈연적 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수령의 영도를 받지 못한 인민대중은 나아갈 앞길을 찾을 수도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투쟁도 할 수 없기 때문에[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총서 10: 영도예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5~36쪽]” 현지도는 인민이 나아갈 방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를 구사하는 수령은 절대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황재준, “북한의 현지도: 끝나지 않은 군중노선의 이상,”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제49권(2001), 46쪽.

에서 펼쳐내는 절대적 존재의 이상화가 현지도도를 통해 구축·강화되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sup>22)</sup> 특정 공간에 대한 현지도도가 반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이와 같은 상징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그러한 상징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다는 측면이 북한 상징정치의 한 단면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또한 현지도도의 동향에서 반복적·계속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를 통해 지도자의 정치적 행태를 파악할 수도 있다. 지도자는 현지도도를 통해 국가주권의 가시적 영역을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추상적 국가와 구체적 개인을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은 현지도도 시행 시 구조화되어 있는 상징적 의례를 통해서 개인과 지도자와의 관계에 의미를 붙여넣을 수 있다.<sup>23)</sup> 홍민은 현지도도를 사회주의 제도적 특성이 북한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접합되고 융합되는 지점에서 형성된 다양한 행위자적 대응방식의 결과로 본다.<sup>24)</sup> 최고지도자의 통치는 단순히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북한 현지도도는 최고지도자(행위자)의 통치수단(행위자적 대응방식)의 하나로서 북한 특유의 정치적 합리성을 현지도도(행위)를 통해 강화하고 재산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 권력 재산출 및 강화로서의 통치수단’의 의미에 기반을 둔 현지도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2) 특히, 1970년 들어 김정일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현지도도는 이상화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 현지도도사적비를 집중적으로 건립하고 각 지역마다 기념보고회를 통해 현지도교시의 관철을 독려하는 등 경제관리 및 동원의 목적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의지를 인민에게 주지시키고 그 권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바뀐 것이다.

23)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8~9쪽.

24) 홍민, “북한 ‘현지도도’ 기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원논집』, 제14권(2001), 1~4쪽.

## (2) 현지도의 정치적 상징기능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는 영국 튜더 왕조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도행사나 일본 메이지 천황이 행한 전국 방방곡곡 순행행렬처럼 근대적 왕조국가의 주권자가 국가영토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권력과 국가적 권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sup>25)</sup> 이와 관련해서 메들리코트(Carol Medicott)는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 국가론을 인용하여 김일성이 모든 조선민족의 아버지로 개념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으로서 온 세상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존재이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처럼 그 자신이 국가이자 국민의 총체가 되어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상징화되었다는 것이다.<sup>26)</sup>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역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북한의 의례가 더욱 장중하게 되고 권력을 상징적 연출로 과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상징의례가 국가적 문화 정체성이 되었다고 말한다.<sup>27)</sup> 이처럼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현지도를 통해 권력의 가시적 영역을 중심에서 주변까지 확산시키고, 체제라는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인을 연결시키고 있다.<sup>28)</sup> ‘현지도’라는 상징의례로 반복되는 정치적 행사를 통해 개인은 체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

25) 다카시 후지타니,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한석정 옮김(서울: 이산, 2003);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6쪽 재인용.

26) Carol Medicott, “Symbol and Sovereignty in North Korea,” *SAS Review*, Vol. XXV, No.2(2005), p.76; 위의 글, 6쪽 재인용.

27) 와다 하루키, 『북조선』, 서동만·남기정 옮김(서울: 돌베개, 2002), 156쪽; 위의 글, 7쪽 재인용.

28) 위의 글, 9쪽.

특정 공간에 대한 높은 빈도의 현지도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공간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상징적 후원 — 현지도 — 이 물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징적 만족을 제공하는 최고지도자의 행위는 공적인 신뢰를 높이고 인민의 목종을 증진시켜 지배권력의 정치질서를 유지하게끔 한다.

‘위대한 지도자’가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여러 해에 걸쳐 아버지로 서 훈수한 뒤 — 김일성과 김정일은 수십 년 동안 같이 다녔고, 떨어져 있을 때는 몇 시간이고 전화로 의견을 나누었다 — 자리를 물려주었다며, … 북한 인민들은 자신들이 공산사회 이상으로 왕조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sup>29)</sup>

또한 지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징과 지도자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신과 피지배자 간 심리적 간극을 제거하고자 한다. 용인된 상징의 수단으로써 현지도가 활용되는 것인데, 특정 공간에 대한 방문과 그 공간에 내재한 인민들에 대한 지도자의 깊은 은혜, 현지도 후 발생하는 다양한 상징조작물 등은 인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지도자를 모시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기 쉬운 인간은 상징의 비이성적인 측면에 집착하기 쉬운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상징의 정치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현지도 용어와 관련해서는, 『조선중앙년감』 1994년 판부터 김정

---

29) 브루스 커밍스, 『김정일코드』, 남성욱 옮김(서울: 따뜻한손, 2004), 127쪽.

일의 ‘실무지도’가 ‘현지지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현지에서 지도’ 또는 ‘돌아보시었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고 김일성과 동일하게 현지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김정일 실무지도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후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sup>30)</sup>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북한 현지지도는 초기의 목적, 즉 ‘생산단위 현장을 방문하여 인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탁상행정 — 관료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 — 을 배격하고 올바른 사업방향을 제시해주는 방법’에서 ‘수령의 영도와 무오류성을 인민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주입시키고 그 권위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전역에 현지지도 사적지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하겠다는 의지는 단순히 경제재건 혹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상징적 결의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현지지도는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정책수단에서 벗어나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인민에게 각인시키고 동시에 그의 권위를 재생산’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

### (3) 현지지도의 공간상징적 기능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공간성은 현지지도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 요소이다. 현지지도는 단어 그대로 ‘현지’에 가서 각종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시대 현지지도는 그 기본

---

30) 황계준, “북한의 현지지도: 끝나지 않은 군중노선의 이상,” 66쪽.

개념에 맞게 경제 문제에 대한 현실적—해당 공간의 문제를 반영한—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중앙집권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현지 실정을 감안한 개별적 지도를 가미하여 생산성 향상을 의도하였던 것이다.<sup>31)</sup> 초기 북한의 ‘현지’지도는 이처럼 다분히 공간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에서 세습으로 이양받은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최고지도자의 목적에 따라 현지도의 의미는 변질되어왔다. 문제가 있는 공간에 가서(on the spot) 현지의 사정을 살피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현실적 지도를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sup>32)</sup> 지도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사상·이념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제로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공간상징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실행되는 것이다. 김정일의 백두혈통 강조를 위한 각종 혁명전적지·사적지 건립이나 김정은의 경제성과 과시를 위한 치적물 건설이 그러하다. 특히, 김정은정권은 그의 ‘존재하지 않는’ 경제성과를 선전하고자 다양한 치적물을 건

---

31) 청산리방법은 김일성이 1960년 2월 5일부터 보름 동안 청산리와 강서군 당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창안한 것으로 새롭게 조직되기 시작한 협동조합에서의 조직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업방법이다. 김일성은 현지를 방문하여 평범한 농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상 전반을 상세히 파악한 뒤 각급 단위의 당사업 형편을 분석함으로써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즉, 중앙집권체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생산 현지실정을 감안한 지도방식으로 자력생성의 기본 구도하에 위에서 아래를 통제하고 지도하되 일반적 지도에 덧붙여서 개별적 지도를 가미하여 생산성 향상을 의도하는 것이다. 유호열, “김일성 ‘현지지도’ 연구,” 200~201쪽.

32) 현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올바른 대책을 제때에 수립하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유기 결합하며, 지도와 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상에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데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한 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것, 즉 현지도인 것이다. 홍민, “북한 ‘현지지도’ 기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90쪽.

설하는데, 이는 스펙터클 ‘중독’ 공간정치<sup>33)</sup>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권력이 세습화되고 정당성이 약화될수록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또한 허구의 권위를 양산하기 위해 대중을 사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치 행위를 한다. 이때 현지도는 정권의 특정한 정책 방향을 산출하고 정치경제적 과정으로서의 대중 동력을 창출하는 정치수단으로서 상징적 정치행위에 상당히 부합한다.<sup>34)</sup> 동시에 특정 공간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지시를 내림으로써 다른 곳은 가질 수 없는 수령의 특별한 지시를 획득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사회주의체제 특유의 성질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을 정치사상과 연관지어 “천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아 6개년 계획을 당 창건 30주년까지 완수해야” 하거나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야” 한다. 정치 없이는 경제체제가 기능할 수 없는 사회체제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한 교시를 내려주는 현지도가 정치문제로 환원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도는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올바른 대책을 제때에 수립하는’<sup>35)</sup> 개념적 정의를 잃고 최고지도자의 사상과 정신을 체득하는 정치행위로 전환된다. 현지를 방문하여 적합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도하는 것이 현지도의 본래적 개념이자 기능이지만 역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정치 행위로 보이며 해당 장소는 정치권력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스펙터클 중독의 공간정치는 땅, 자연, 도시, 건축, 시장, 주택, 동네, 거리, 광장, 조경, 조형물, 교통서비스, 환경 등

---

33) 김진애, 『공간정치읽기』(서울: 서울포럼, 2008), 23쪽.

34) 홍민, “북한 ‘현지도’ 기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87쪽.

35)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220~221쪽.

시민을 감싸고 있는 무한한 공간이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sup>36)</sup> 이에 따르면 정치권력은 공간을 시민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시와 선전, 내면화와 선동을 위한 장치로 인식한다. 현지도의 공간상징성은 이처럼 공간이 공간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현지도를 통해 어떠한 상징을 내포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도출된 상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 3. 김정일 현지도 분석

#### 1) 김정일 현지도 동향

이 연구는 김정일 현지도의 분석 대상을 1998년 이후 4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집권’의 개념을 설정할 때 명분상 집권이 아닌 실질적 집권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통치권자가 되었으나 1997년까지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유보하며 유훈통치를 하였음을 감안하고 1998년 헌법 개정 및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이후를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 출범으로 간주하여, 공식적·실질적 집권의 시작을 1998년으로 설정하였다.

1997년 10월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한 이후 공식적으로 집권 1년차를 맞이한 1998년 현지도 횡수는 총 57회에 달한다. 김일성 사망 이후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연평균 18.5회<sup>37)</sup>임을 고

---

36) 김진애, 『공간정치읽기』, 23쪽.

37)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연도별 현지도 횡수는 이교덕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 표 1 > 김정일 현지지도 부문별 통계 (단위: 횟수, %)

연도	총 횟수	정치·사상	경제·민생	사회·문화	군사	외교
1998	57	8	11	5	32	1
		14.04	19.30	8.77	56.14	1.75
1999	58	6	22	2	27	1
		10.34	37.93	3.45	46.55	1.72
2000	59	6	29	1	13	10
		10.17	49.15	1.69	22.03	16.95
2001	71	6	29	5	26	5
		8.45	40.85	7.04	36.62	7.04

자료: 『로동신문』(1998~2001) 및 통일연구원,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11』(서울: 통일연구원, 2011)를 참고하여 작성.

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후 1999년에 58회, 2000년 59회, 2001년 71회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집권 1년차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군사’이다. 김일성 사망 이전에는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지도가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김일성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수행한 것이었다.<sup>38)</sup> 해당 부문 현지지도는 1995년부터 크게 늘었으며 이후 차츰 소강세를 보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중점적으로 펼쳐왔는데 이는 김정일의 정책노선과 관련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

---

관람과 휴양, 해외순방 등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한기범의 연구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승계 단계(1995~1997년)에는 매년 30~35회로 1998년 이후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38)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36쪽; 황재준, “북한의 현지지도: 끝나지 않은 군중노선의 이상,” 57쪽.

승계 작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북한은 김정일만의 새로운 슬로건인 군(軍)을 내세웠다.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대국론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하였고, 강성대국을 이끌기 위한 선군의 정치방식은 김정일만의 통치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군사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활용하겠다는 김정일의 정치적 의도는 현지지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공식 집권 1·2년차 이후 권력이 안정화되는 시기인 3·4년차에는 경제민생 부문의 비중이 확대된다. 2년차에는 군과 경제 부문 간 격차가 줄었으며, 3년차에 이르러서는 경제 부문이 군 부문 현지지도를 추월한다. 집권 연차가 높아질수록 경제민생 분야의 현지지도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정일정권의 목표인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사회주의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구호로 나타난다. 이때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군사력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김정일 현지지도는 군사 및 경제 부문이 높을 수밖에 없다.

## 2) 김정일 현지지도 특징

### (1) 연도별 특징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이 공식화된 1998년 이후부터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노동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군사를 우선시하는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집권 1년차의

김정일 현지도는 과반수(전체 대비 56.14%) 군사 부문에 집중되었다. 집권 1년차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한 경제 부문은 북한 경제 전반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sup>39)</sup> 김정일이 공식 집권자가 된 1998년에는 -1.1%로 전년도(-6.8%)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다. 6월 1일 자강도 희천시를 방문하여 청년전기연합기업소가 맡고 있는 임무는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뿐 아니라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은 주체적인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나라의 공업화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같은 해 하반기(10월 20일)에 희천에 재방문하여 희천공작기계공장과 청년전기연합기업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sup>40)</sup> 이와 관련하여 1998년 총 57회의 현지도 중 경제 부문은 11회, 자강도는 5회로 부문 내 45.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경제 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

39) <표> 북한의 경제성장률(1990~1998) (단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성장률	-3.7	-5.1	-7.7	-4.2	-1.8	-4.6	-3.7	-6.8	-1.1

자료: 남성욱,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 연구』, 제12권 1호(2000), 230쪽.

40)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생산을 부단히 늘려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으로서의 전통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청년전기연합기업소에서는 질 좋은 전기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기업소 앞에 나서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 편집부,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 지도도에서 제시된 주요과업,”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제1권 제3호(1999), 46~49쪽.

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 정상화,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경제부문 현지지도를 대폭 증가시켰다. 분석 결과 전년도 11회(전체 대비 19.3%)에 비해 2배 증가한 22회(37.9%)를 보였다.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하여 ‘제2의 천리마 대약진 운동’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노력동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sup>41)</sup>

김정일은 2001년도에 ‘군혁명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선전<sup>42)</sup>하면서 선군이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미래를 대표하는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한다.<sup>43)</sup>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경제민생 부문은 10%포인트 가까이 감소(40.8%), 군사 부문은 약 15%포인트 증가(36.6%)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탕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김정일의 평소 언급과 맥이 닿아 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사탕은 생활에 필요한 주식물 이외의 식품을, 총알은 군수품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라고 해석하였다.<sup>44)</sup> 이와 연계하여 김정일은 2001년 현지도 총 71회 중 36.6%에 달하는 26회를 군사 부문에 할애하였다. 전년도 총 횟수 대비 22.0%와 비교해 14%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 (2) 공간별 특징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모든 연도에서 평양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

---

41) 남성욱,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가능한가,” 232쪽.

42) 『로동신문』, 2001년 12월 17일.

43) 『로동신문』, 2001년 12월 21일.

44) 『청년전위』, 2001년 11월 9일.

<표 2> 김정일 평양 지역 현지도 부문별 통계

분야	정치·사상	민생·경제	사회·문화	군사	외교	총계
빈도수	18	13	11	12	11	65(회)
비율	27.69	20.00	16.92	18.46	16.92	100(%)

자료: 필자 작성.

1998년에는 금수산기념궁전(3회), 만수대창작사(2회), 4·25예술영화촬영소(2회), 기타 만경대혁명학원(1회), 3대혁명전시관(1회), 김일성광장(1회), 애국열사능(1회) 등 정치사상 분야가 대부분이다. 1999년에는 정치사상 분야에서 금수산기념궁전(3회), 문화 분야에서 4·25문화회관(2회), 경제민생 분야에서 국가과학원(1회), 가금목장(1회)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방문하였다. 2000년에는 순안국제공항과 백화원초대소, 목란관 등 외교 분야에서의 방문이 잦았고, 금수산기념궁전(3회), 김일성광장(1회), 매스게임 관람을 위한 5월1일경기장(3회) 등 정치 분야의 방문도 두드러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열대메기공장(3회)이 돋보였다. 2001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각 4회의 동향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금수산기념궁전(3회), 가금목장(1회)과 메기공장(1회), 만수대예술극장(1회)과 인민문화궁전(1회), 평양대극장(1회) 등이다. 이와 같이 모든 연차에서 평양에 대한 현지도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장소 측면에서도 다양하여 수도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정권 교체기 권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와 같은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의 축소를 위해 평양이라는 북한의 제1상징공간에 집중 방문함으로써 선대의 주체사상·선군사상의 이데올로기와 조선로동당의 권력을 정통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간다는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집권 초기 4년을 통틀어 볼 때 평양 현지도에서 정치·사상 부문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998년 북한은 반일 혁명투사, 정치인, 작가  
 등 400여 명(1998년 기준)이 문헌 애국열사릉을 고인의 사진을 묘비에  
 새겨 넣는 등 새로 단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1986년 9월 평양시 신미  
 리에 건립된 애국열사릉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원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투사’<sup>45)</sup>가 문헌 공간이라고 설명된다. 또한 만경대  
 혁명학원은 혁명유자녀 교육기관으로 북한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기  
 능한다. 만경대혁명학원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는 북한 엘리트  
 양성에 대한 지원 등 애정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그들의 충성심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6)</sup> 이와 같이 평양에는 체  
 제 이념을 보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간이 상당하다. 김정일  
 은 이 같은 공간에 대한 현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평양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사상적 위대함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양은 북한 정권 수립 초기부터 수도로서의  
 중요성뿐 아니라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북한의 집  
 중적인 관리를 받아왔다.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에서 평양은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확대하였다.<sup>47)</sup> 근대국가에  
 서 수도가 가지는 위상은 일반적으로 막강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수  
 도를 공고히 하는 작업은 수도의 일반성을 넘어 더욱 심층적이고 미

4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46) 김정일의 저자 중 『김정일 선집』, 제14권 1012호에 실린 ‘만경대혁명학원 창립  
 50주년에 즈음하여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만경대혁명학  
 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 나갈 핵심공간양성기지”라고 설명되어 있다.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114쪽.

47) 전상인·조은희·김미영, “북한의 수도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  
 총』, 제52권(2013), 63쪽.

<표 3> 김정일 현지지도 중 혁명사적지 및 전적지

방문/보도일자	장소	행정구역
1998.10.22	고산진혁명사적지	자강도 단포시
1999.6.17(보도)	항하혁명사적지	자강도 장강군
1999.9.12	남림혁명사적관, 연풍혁명사적관	자강도 남림군, 강계시
2000.3.29(보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양강도 삼지연군
2001.5.28(보도)	신흥지구 혁명전적지	함경남도 신흥군
2001.8.26	룡포혁명사적지	강원도 법동군

자료: 필자 작성.

시화된다. 기실 북한의 평양 중심 행정제도는 최고지도자 1인 독재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집권 초기 평양 중심의 현지지도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투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일의 또 다른 상징적인 장소는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이다. 선대에서부터 이어진 혁명사·전적지 강화 정책은 김정일 집권 전 활동에서 발견된다. 김일성이 이룩한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김일성의 혁명활동을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교양시키기 위해 구축되는 공간으로 북한의 혁명전통을 유지해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특히 김정일은 집권 초기 4년간 자강도 내 혁명사적지 등을 자주 방문하였다. 북한 초기 보천보혁명전적지(1955년 조성)를 중심으로 한 혁명전통, 즉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강조 시기 이후 김정일(1976년

48)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84~85쪽.

장자산혁명사적지 조성)을 비롯하여 김정숙(1974년 신화혁명사적지 조성), 김형직(1980년 봉화혁명사적지 조성) 등 혁명 일가의 혈통을 강조하였고, 백두밀영(1987년 개영)을 통해 김정일의 계승성을 강조한 시기를 거쳐 공식 집권 이후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고 자신의 업적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북한 전역을 혁명전적지·사적지화하게 된다.<sup>49)</sup> 이와 관련하여 1998년에는 고산진혁명사적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고산진혁명사적지를 방문하였고 1999년에는 지난해(1998년) 사적관 창립 40주년을 치른 향하혁명사적지와 연풍혁명사적지를 현지도하였다. 특히 2001년 5월 방문한 함경남도 신흥군 신흥지구의 혁명전적지에서는 일꾼들과 담화를 나누며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50)</sup> 2000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현지도에서도 혁명전통을 강조하며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지도력과 지도자로서의 통찰력을 강조하였다. 백두산혁명전적지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 등 김씨 가계를 우상화하는 장소로 기능하며 ‘백두혈통’이 아닌 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암묵적으로 강조한다.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통해 ‘혈통계승’, ‘삼대에 이은 백두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세습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백두혈통의 발원지라는 공간적 속성을 자극하여 김정일 정권을 선전하면서 인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킨다. 북한의 이념과 사상, 특히 세습 권력의 정당성 측면을 백두산이라는 공간에 투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이 최초 구축해 놓은 백두산이라는 공간은 미란다적 상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후대에 이를수록 미란다

49) 위의 글, 79~87쪽.

50) 김정일, 『주체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523호(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위의 글, 114쪽 재인용.

상징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 4. 김정은 현지도 분석

##### 1). 김정은 현지도 동향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이후 동년 동월 30일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고 이듬해 4월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것을 토대로 김정은 집권기의 시작점을 2012년으로 설정, 2015년 9월 30일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김정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연 관람 및 기념 촬영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 부인인 리설주를 대동하여 공연을 관람하거나 미국 전(前) NBA 선수 테니스 로드먼과 농기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 대동자의 정치적 중요성 및 유의미성을 고려해보면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2012년 등장한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대의 음악정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여 창단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공연을 관람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체육, 민생 분야에 대한 현지도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해당 분야들과 관련하여 상징적인 건물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였다.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집권 첫 해 ‘체육 강국’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 2012년 11월 인민야외빙상장과 툴러스케이트장 건설현장 현지도로 시작으로, 2013년 6월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룡라인민체육공원 현

지지도, 9월 리모델링한 평양체육관 시찰, 10월 완공된 미림승마장 시찰, 12월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시찰, 이외에 체육 경기 관람, 데니스 로드맨과의 접견 등 체육 관련 다양한 활동을 보였다. 이는 선대에 비해 리더십의 토대가 취약한 것에 대한 우려로 ‘체육’을 통해 실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집권 후 총 11차례 관련 시설 건설 현장을 시찰하였다. 2014년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이 강성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며 과학자와 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한바 있다. 2014년 3월 6일에 착공식을 한 후 7개월 뒤인 10월 10일 완공된 위성과학자 거리는 김정은의 상징적 치적물 중 하나이다.<sup>51)</sup> 2014년 40여 일의 공백 후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위성과학자거리였던 만큼 김정은은 이 공간을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간주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김정일과 달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민생 분야에서는 2012년 각종 유희장과 공원, 백화점 등 즐길 거리에 집중하였다면 2013년에는 대성산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교육자 살림집 등 의료 분야에, 2014년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 2015년 육아원과 애육원 및 양로원 등에 방문하여 애민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육아원·애육원은 집권 기간에 총 9차례 현지도(평양 6, 원산 3)하였으며 공식 출범한 직후인 2012년 4월과 6·1국제아동절에는 황해북도 보육원에 식료품과 의류를 선물, 같은 해 10월 북한 전역의 보육원에 꿀을 보내기도 하였다.<sup>52)</sup> 김정일시대 혁명가유자녀학원을 제외한 일반 보육원에 선물을 보내준

---

51) 『조선중앙통신』, 2014년 10월 14일.

52) 『연합뉴스』, 2013년 12월 26일.

<표 4> 김정은 현지지도 부문별 통계 (단위: 횟수, %)

연도	총 횟수	정치·사상	경제·민생	사회·문화	군사	외교
2012	111	34	32	10	33	2
		30.63	28.83	9.01	29.73	1.80
2013	162	35	70	19	33	5
		21.60	43.21	11.73	20.37	3.09
2014	144	20	67	15	41	1
		13.89	46.53	10.42	28.47	0.69
2015	91	14	52	3	21	1
		15.38	57.14	3.30	23.08	1.10

자료: 『로동신문』(2012~2015년 9월 30일); 통일연구원, 『김정은 동향 2010-2012』(서울: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 『김정은동향 2013』(서울: 통일연구원, 2013);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kinfo.unikorea.go.kr/nkp/trend/publicEventMain.do>>을 참고하여 작성함.

적이 없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는 집권 첫해인 2012년 111회를 기록한 이후 2013년 162회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144회를 기록하며 시간이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91회의 지도를 하였다. 한 달 평균 10여 회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월평균 약 5회를 보인 김정일과 대조적이다. 2년차 월평균 13.5회, 3년차 월평균 12회, 4년차 월평균 10.1회 등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는 집권 초기에는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자 노출 빈도를 높이다가 집권 연차가 높아질수록 전략적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1년차에는 각 34회와 33회를 차지한 정치사상과 군사 부문의 비중이 크다. 정치사상 분야는 1년차에 전체 비중에서 약 30.6%를 차지했던 것이 2년차에 21.6%, 3년차에 13.8%, 4년차에 15.3%로 감

소하는 양상을 띤다. 대조적으로 집권 연차가 높아질수록 경제민생 분야에 대한 현지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년차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9월까지의 동향에서는 과반인 57.14%에 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외교 분야의 경우 1년차의 2회는 모두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의 접견, 2년차는 전승절 관련 행사 3건과 테니스 로드먼과의 경기 관람 2건, 3년차의 1회는 역시 테니스 로드먼과의 경기 관람, 4년차의 1회는 쿠바 대표단과의 접견이다. 테니스 로드먼과의 만남은 외교로 분류하였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체육’ 관련 활동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1년차 10회, 2년차 19회, 3년차 15회, 4년차 3회를 차지하였는데, 1년차는 80%가 음악 공연 관람, 미술전시장 시찰이나 이후 2년차부터는 대부분이 체육 관련 현지도이다.

## 2) 김정은 현지도 특징

### (1) 연도별 특징

집권 1년차에는 군부대 방문을 제외하고는 평양을 벗어난 활동을 좀처럼 하지 않았다. 총 빈도수의 70%에 달하는 74회의 현지도가 평양에서 이뤄졌다. 특히 수도 평양을 가꾸는 데 집중하였는데, 2012년 4월 27일 당·경제기관·근로단체 간부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에는 김정은의 수도 평양의 재건 의지가 나타난다. 평양을 혁명의 수도답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가꿀 것을 명했으며, 만수대언덕과 금수산태양궁전, 만경대에 대한 원림녹화사업을 지시했다.<sup>53)</sup> 광명성절을 맞이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을 공표한 이후 연말까지 10차례 더 방문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13일에는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옆에 김정일 동상을 새로 건립하는 제막식에, 10월 29일에는 김일성종합 대학에 세워진 동상 제막식 참석하였다. 김정은 자신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대부터 이뤄진 세습체제와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권력 공고화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과학기술, 특히 우주 과학에 집중하기도 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정수인 인공위성 발사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치입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sup>54)</sup>

김정은은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11월 22일 평북 철산군의 동창리 로켓발사장을 찾았다. 이후 발사 전인 12월 6일 위성관계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고, 발사 당일인 12월 12일 위성관계종합지휘소를 찾아 발사과정을 살펴보았다. 이후 21일과 30

---

53)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8일.

54)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4월 27일.

일 두 차례 과학자·기술자들을 목란관에 초청하여 연회를 개최해주었다. 2012년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자 강성대국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해로, 태양절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과란 많은 수난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웠습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라는 카드를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년차에는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후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상반기 현지도는 기계, 화학, 건설, 식료 등 경공업, 농업 등 여러 분야의 생산현장에 대한 것에 집중되었다. 5월 26일 새로 건설 중인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을 현지도하면서 “올해 겨울철부터 스키장을 운영할 수 있게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지시하며 인민생활을 향상하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sup>55)</sup> 특히 2013년에는 아동병원,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건설현장 현지도 등 애민적 지도자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인민경제에 신경 쓰는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노출시킴으로써 경제정책과 정치적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상징적 공간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특이한 점은 모두 관광 분야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이들 상징물은 관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화려하고 웅장한 상징적 건축물들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위

---

55) 유영구, “올해 상반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제 현지도의 특징은? 전국 현지도하며 ‘지식경제시대’ 강조 모범단위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 민족21, 『민족21』, 제150호(2013), 87~88쪽.

<표 5> 2013년도 김정은 현지지도 중 관광 분야 관련 사항

장소	빈도수	비고
마식령스키장	5	완공 현장 시찰(12/31 보도)
미림승마구락부	4	완공 현장 시찰(10/14 보도)
문수물놀이장	4	완공 현장 시찰(10/21 보도)
룡라인민유원지	1	
마전해수욕장	1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	1	

자료: 필자 작성.

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징물 건설 경향은 체육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은은 8월과 9월 각 1회씩 개건 중인 평양체육관 현지지도에서 리모델링 상황을 점검하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었다고 평가했다. 앞선 3월에는 종합 체육문화기지라 할 수 있는 청춘거리 체육촌을 방문하여 “훌륭히 개건보수하여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지도한 바 있다. 시설 건설 이외에도 체육 관련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분석 결과 2013년 총 18회의 체육 관련 현지지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2012)의 2회에 비하면 9배 높은 수치이다. 태양절과 청년절 등 국가 명절에 체육경기를 관람하거나 평양시민들과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등 인민과 함께 체육 경기를 관람한 점이 주를 이룬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국 NBA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과 농구경기를 관람한 것 또한 특징이다.

3년차에는 민생과 관련한 현지지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애민적 의미 강요 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부인 리설주가 동행하는 것이 특징

이다. 2014년 2월 평양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대동강 기슭에 현대적 시설로 새로 꾸릴 것을 지시했다. 그해 10월 완공된 육아원·애육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사랑을 과시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5차례에 이르는 현지지도를 하였다. 미래세대를 겨냥한 모습은 다양한 시설물 건설에서도 나타난다. 2013년에 이어 관광 분야의 공간에 다수 방문하였는데 소년단야영소 시찰이 잦다. 김정은은 원산에 위치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2014년에만 5회 방문하였다. 각 2·4·5·6·7월로 상반기에 집중된 모습이다. 5월 현지지도에서는 준공식에 이어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 및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관람 등 공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외에 새로 개건하고 있는 중앙동물원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모두 어린이와 관련된 장소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한 건설 현장을 자주 시찰했으며, 과학자들을 위한 공간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도 하였다. 1월 평안남도 평성의 국가과학원 현지지도를 시작으로 5월에 연풍과학자휴양소 건설 현장에 방문, 6월 평양 축섬에 과학기술전당을 건립할 것을 지시, 같은 달에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장에 방문하여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시찰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과학기술 상징공간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모두 평양 및 평양 인근 평성에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의 성과와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평양에 집중하여 상징물로 건설해냄으로써 북한체제의 과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달성하였고 해당 지역이 과학의 도시가 되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평안남도 평성시의 위성과학자거리는 김정은 체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북한 언론은 위성과학자거리가 조선노동당의 과학 중시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보도하며

김정은의 업적을 강조했다.

4년차에는 전년도와 과학중시정책과 과학기술 관련 상징물 건설 경향이 이어졌다. 2013년 평양의 은하과학자거리와 2014년 평성의 위성과학자거리에 이어 금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된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했다.<sup>56)</sup> 미래과학자거리는 2년 전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와 달리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김정은은 2월 현지지도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 있다”며 대만족을 표시했으며, 주택단지 조성과 더불어 주변 지역 원림녹화사업도 진행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 같은 행보는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려는 의도에도 부합된다. 53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와 공공건물, 사무실이 건설된 것을 비롯하여 중구역에 있던 창광상점도 미래과학자거리 내로 이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광상점이 본래보다 2배나 더 크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로 꾸려짐으로써 상점에 어려웠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sup>57)</sup>

이전된 창광상점은 내용면에서나 규모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자랑한다. 특히 본래보다 2배나 크게 건축되었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되

---

56) 2014년 5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현지지도 당시 건설 중인 살림집들을 축으로 대동강변에 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을 꾸려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라고 명명해주었다.

57) 『로동신문』, 2015년 9월 25일.

었다고 밝힌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민편의시설이기 이전에 북한의 건축기술과 경제상황을 보여줄 상징적 건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대동강에 띄운 ‘무지개호’는 북한당국의 외화벌이이자 평양의 화려함을 대외에 과시할 수단으로 기능한다. 1,2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유람선 무지개호는 대동강 옥류교와 대동교 사이를 오가며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평양의 재건을 위해 2015년 강조하는 또 다른 치적물들이 있다. 북한은 ‘순안국제공항’<sup>58)</sup>에 대해서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자동화연구소’<sup>59)</sup>는 ‘궁궐같은 건물’이라며 규모의 우월성을 부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전당’<sup>60)</sup>은 연 건축 면적이 10만m<sup>2</sup>에 달하는 거대한 원자구조 모양의 건물로 김정은의 주요 치적 중 하나로 선전하고 있다.

## (2) 공간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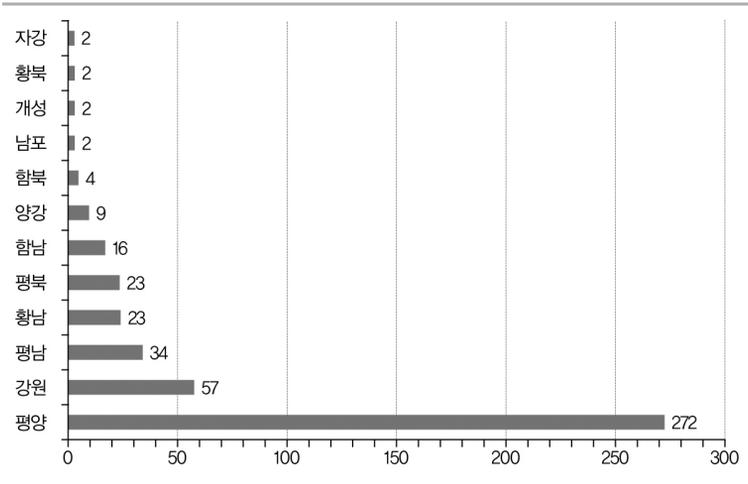
김정은은 집권 후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체육 및 위락시설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1년차에는 평양민속공원, 류경원, 룡라인민유원지, 빙상장 등을, 2년차에는 평양체육관, 미림승마장,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을 건설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노동당 창건 68주년을 전후로 미림승마장,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등을 완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정은의 건설 정책은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첫 경제담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

58) 2015년 4월 12일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 2015년 6월 25일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현지지도; 2015년 7월 1일 평양순안국제공항 신청사 건설공사 마무리, 준공식(김정은 현지지도는 없음).

59) 2015년 7월 3일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 현지지도.

60) 2015년 2월 27일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지도.

<그림 1> 김정은 현지지도 지역별 그래프(2012.1.1~2015.9.30)



자료: 필자 작성.

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 올데 대하여’(김정은, 2012)에 기인한다. 김정은은 담화를 통해 가로수와 화훼, 조경 등을 중심으로 한 ‘평양시 미화’와 ‘지방도시 및 농촌마을 특성화’ 조치를 지시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평양은 북한체제의 상징물들을 간직해왔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직후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세습의 뿌리였던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매진한다. 2012년에만 총 네 차례(평양 기준) 우상화 동상을 건립하였다. 만수대 언덕(4월), 인민무력부 청사(8월), 김일성종합대학(10월)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건립하였고 국가안전보위부 청사(10월)에 김정일 동상을 단독으로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대표적인 상징물인 금수산태양궁전은 정치사상적으로 북한의 기둥이 되는 한편, 도시미학적으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2012년 2월 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금수산기

남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을 공표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김정일 서거 1주기에 맞춰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개최한다. 2014년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모 행사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행한다. 1주기와 2주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정은 정권 우월성을 선전·과시하기 위한 치적물로는 평양 순안 국제공항을 활용하였다. 김정은은 2014년 7월<sup>61)</sup>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sup>62)</sup> 이듬해 4월 평양국제공항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2014년 10월, 평양국제공항 2청사 건설현장 현지지도의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부 마감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형성안들을 검토하여 다시 ‘개작 설계안’을 완성할 데 대한 과업을 주셨다”<sup>63)</sup>는 보도가 있었다. 직전인 7월의 현지지도 때 내려준 지침 —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무리하라”<sup>64)</sup> — 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정은은 2015년 4월, 평양국제공항을 다시 찾아 지난 현지지도에서 제시한 과업을 이행하였는지 체크하고 평양국제공항이 북한 건축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당 공간의 대외적 상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김정은의 두 번째 상징공간은 강원도 원산이다. 2014년 6월 갈마 식료공장 현지지도, 전술로켓 발사훈련을 원산 인근에서 지도하였고, 원산에 위치한 송도원국제소년야영소 현지지도를 2014년 상반기

---

61) 방문일자는 7월 중이나 정확한 일자는 불분명하며 『로동신문』 보도일자는 2014년 7월 11일.

62) 방문일자는 10월 중이나 정확한 일자는 불분명하며 『로동신문』 보도일자는 2014년 11월 1일.

63) 『로동신문』, 2015년 11월 1일.

64) 『로동신문』, 2014년 7월 11일.

에만 6차례 실시하였다. 매년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도 원산에서 개최(2014년 3월)되었다. 김정은체제 들어 가장 공을 들여 건설되었다는 마식령스키장 또한 원산 인근에 세워졌다. 이처럼 김정은이 원산에 대한 정치·경제적 투자를 하는 것은 그의 성장배경과도 관련이 있다.<sup>65)</sup> 원산은 재일동포 북송선이 입항한 도시로 당시 김정은의 친모 고영희 또한 원산을 통해 북한에 들어오게 되었다. 김정은에게 원산은 ‘제2의 고향’이자 생모를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원산 지역에 대한 현지지도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친모 우상화 작업으로 연결하여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원산에 ‘602’라고 불리는 초호화 별장을 지어놓고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sup>66)</sup> 올해 2월에는 북한 권력 실세인 최룡해와 황병서를 대동하여 원산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건설장에 방문, 지도를 내리기도 하였다. 김정은의 원산 행보가 계속된다면 원산은 조만간 평양에 이은 북한 제2의 도시이자 김정은 통치 시대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세 번째 상징공간은 북한의 혁명의 상징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이다. 현지지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15년 9월 25일 양강도 혜산시 해명동 전적관리소 인근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새로 건립하였다.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통해 ‘혈통계승’, ‘삼대에 이은 백두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정권의 세습권력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2014년 4월 1일, 양강도 삼지연대기념비 앞에서 백두산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군 연합부대 지휘관들과

65) 임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성장과정 및 사상적 기반, 정당성, 리더십 특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동북아연구』, 제29권 1호(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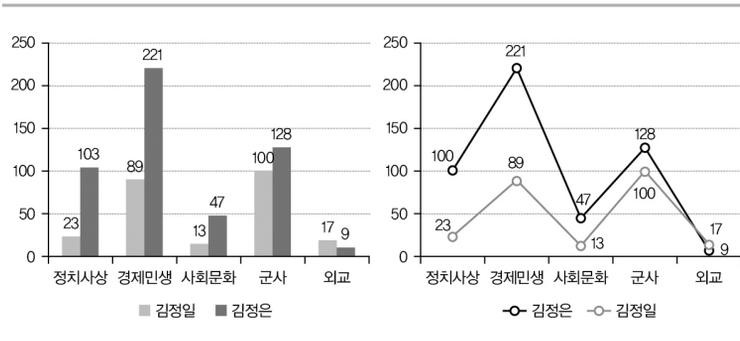
66) 『SBS뉴스』, 2014년 7월 8일.

<표 6>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동향 비교 (단위: 횟수, %)

구분	연도	총 빈도수	해당 연도 전체(100%) 대비 비중				
			정치사상	경제민생	사회문화	군사	외교
김정일	1998	56	12.50	19.64	8.93	57.14	1.79
	1999	57	7.02	38.60	3.51	49.12	1.75
	2000	58	10.34	48.28	1.72	22.41	17.24
	2001	71	8.45	39.44	7.04	38.03	7.04
	총계	242(회)	9.50	36.78	5.37	41.32	7.02
김정은	2012	111	30.63	28.83	9.01	29.73	1.80
	2013	162	21.60	43.21	11.73	20.37	3.09
	2014	144	13.89	46.53	10.42	28.47	0.69
	2015	91	15.38	57.14	3.30	23.08	1.10
	총계	508(회)	20.28	43.50	9.25	25.20	1.77

자료: 필자 작성

<그림 2>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동향 비교 그래프



자료: 필자 작성.

담화를 나누고 양강도 순회공연 예정인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노동당 만세 소리

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면서 양강도를 첫 지방공연 장소로 지목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 백두산 장군봉을 방문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 속에 영원히 품어 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 재보”<sup>67)</sup>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2015년 신년사에서 이어진다.<sup>68)</sup> 신년사에 이어 4월 18일 김정은은 직접 백두산을 등반한다.<sup>69)</sup> 몸소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양강도 백두산은 김일성 항일혁명투쟁이 발원한 북한 김씨 세습체제의 신성한 장소로 기능한다. ‘백두혈통’을 내세우며 인민에게 이를 주입하고 선대에 이어 후계자로 오른 김정일, 김정은 등에게 정통성을 제공해준다. 모란봉악단의 지방 순회공연 중 양강도가 첫 번째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태양절에 맞춰 백두혈통을 공고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것이 인민에게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전파될 수 있도록 공연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 ‘백두혈통의 발원지인 양강도’라는 공간적 속성을 자극하여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67) 『로동신문』, 2014년 10월 31일.

68)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 속에서 전군과 온 사회의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맥박치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5년 1월 1일.

69) 2015년 4월 18일 새벽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백두산을 등정하였다. 『로동신문』, 2015년 4월 19일.

## 5. 김정은 현지지도의 상징성 분석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김정일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1년차의 경우 김정일 1년차와 비교해볼 때 경제민생 분야의 현지지도가 전체 비중 19.64%(김정일) 대비 28.83%(김정은)으로 약 10%포인트 높다. 경제민생 분야에서의 현지지도 비중 확대는 집권 연차가 상승할수록 두드러지는데, 2년차에는 전년도에 비해 1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3년차인 2014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대비 약 47%에 달한다. 또한 해당 분야 현지지도는 금년도 들어서 6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15년 10월 이후의 동향에서도 경제 부분은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은 선대와 달리 경제 분야, 특히 관광과 전시성 치적물, 과학기술, 실질경제(수산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sup>70)</sup> 한편 외교 부분에서는 김정일이 집권 3년차부터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등과 빈번한 접촉 가진 것에 비하여 김정은의 경우에는 테니스 로드먼을 초청하여 외부 인사와 교류한 것이 전부다.

이처럼 현지지도 분야와 장소 횡수 등에서 선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였다. 시기와 장소에 담긴 의미를 부여하여 권력 정당성 확보를 통한 권력 공고화, 관광산업발전과 시설 건설 과정에서 ‘속도전’, 과학기술우선정책과 충성유도, 애민적 지도자 이미지 형성 등의 상징정치 목적으로

---

70)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살펴보면 집권 초기 4년 동안 경제부문의 현지지도는 메기공장, 닭공장, 염소농장, 가금공장, 협동농장, 발전소, 기계공장, 연합기업소 등을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관광 관련 현지지도는 칠보산유원지와 금강산관광지구 두 곳에 그쳤다.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 1) 권력 정당성 확보

김정은이 여러 악재 속에서 우려를 종식하고 집권 초기 권력 확보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의 정당성이 인민들에게는 종교적 개념으로 치환되는 선전·선동을 통해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시기부터 북한이 지속적으로 고수해온 ‘우리식 사회주의’와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이 북한최고지도자들의 권력 이양을 수월하게 구축했다고 하겠다. 김정일은 제도권력의 중심에 서서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신화화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격적 리더십도 창출해나갔다. 후계자로서 김정일은 혁명전통의 신화화를 통해 정당성과 자신의 자질을 검증해나갔던 것이다.<sup>71)</sup>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김일성 항일빨치산운동을 유훈통치를 주요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여 정통성을 확보하여 왔다. 정치적 기반이 미미한 김정은 역시 자신이 북한체제의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대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 정당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극대화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가축주의적 전통을 강조하는 유교사상이 기반이 되어 왕위 물림의 정당성을 확보했던 것과 흡사하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백두산혈통이 북한의 정권 승계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여 김정은으로의 세습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권력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금수산태양궁, 김일성광장, 만수대언덕 등지를 국가의 기념일과 경조사에 빠짐없이 방문하였다.

---

71) 정영철,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 ‘수령체계’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55권(2002).

<표 7> 김정은 현지지도의 공간상징성 1: 권력 정당성 확보 측면

방문지	빈도수		비고
금수산태양궁전	1년차(2012)	11	
	2년차(2013)	10	
	3년차(2014)	8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 당시 리설주, 상복과 초상회장 착용
	4년차(2015)	6	
김일성광장	1년차(2012)	2	
	2년차(2013)	2	
	3년차(2014)	0	
	4년차(2015)	0	
만수대언덕	1년차(2012)	1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제막식
	2년차(2013)	0	
	3년차(2014)	0	
	4년차(2015)	0	
4·25문화회관	1년차(2012)	2	
	2년차(2013)	1	
	3년차(2014)	0	
	4년차(2015)	0	
백두산/삼지연 혁명전적지	1년차(2012)	0	
	2년차(2013)	1	삼지연 혁명전적지
	3년차(2014)	2	백두산 장군봉 등정(10월)
	4년차(2015)	1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자료: 필자 작성

특히 금수산태양궁전(11회), 김일성광장(2회), 만수대언덕(1회), 4·25문화회관(2회)<sup>72)</sup>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장소를 방문했는데 이는 선대의 유훈을 따르는 동시에 자신이 정통성을 갖춘 적통자임을 위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상 분야에서의 현지도 비율이 집권 1년 차에 가장 높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본인만의 특정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세습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으로 자신이 김일성-김정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적통자이자 북한 사회를 다스릴 책임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사상적 기초를 강조하는 장소를 다수 방문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승계기간과 어린 나이로 미숙한 정치력, 불안한 권력기반을 가진 김정은이 정치적 친위세력 육성과 권력의 정통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북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 북한의 정치사상적 기둥이 되는 한편, 도시미학적으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2012년 2월 16일, 김정은은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을 공표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김정일 서거 1주기에 맞춰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개최한다. 2014년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모 행사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행한다. 1주기와 2주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3년 탈상을 하고 김정은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추모대회 장소로 택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현지도도를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앞서 이용하기도 하였다. 장성택 숙청을 앞두고는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여 이른바 ‘백두혈통’으로서의 최고지도자의 정당성을 확인시키는 정치를 펼쳐나

---

72) 평양시 모란봉구역 장경동에 있는 북한 최대의 공연시설로 1975년 10월 ‘2·8문화회관’으로 개관하였다. 북한 인민군과 가족들의 사상·문화·교양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으며, 주요 국가행사가 많이 열린다. 『두산백과』.

갔다. 장성택 숙청작업이 한창이던 2013년 11월 30일, 김정은은 백두산지구 삼지연 김일성·김정일 사적지를 방문하여 “길이 빛나라 삼지연의 강행군 길이어”를 발표하였다.<sup>73)</sup> 김정은은 글을 통해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에는 자기의 근본이 있고 혈통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의 뿌리와 전통은 바로 ‘백두의 혁명전통과 주체의 혈통’이고 연대를 이어가며 순결하게 고수하는 이 즐기찬 피줄기(뺏줄기), 주체의 혈통의 근원이 백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4월 20일 김정일 원수 칭호 기념일에도 백두산을 방문하여 김일성 혈통으로 이어지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의 뿌리가 백두산임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주요 항일혁명활동 무대라고 선전해온 백두산에 김정은이 직접 동반하여 자신이 ‘백두혈통’을 이어온 혈육임을 강조함으로써 체제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된다.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체제 선전을 위하여 김일성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서 있는 사진을 『로동신문』 1면에 공개하면서 김정은만이 선대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영도 풍모와 혁명 방식을 이어갈 유일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또한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선포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북한은 2015년 8월 15일 0시에 평양 중구역 대동문의 연광정에서 티종행사를 가졌다. 우리보다 30분 이른바 북한만의 ‘표준시’를 사용의 시작을 선포하는 행사였다. 이 시간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였다.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이 광복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곳의 현지 방문 횡수도 점점 줄어 나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

73) 『로동신문』, 2013년 12월 11일.

라고 평가된다.<sup>74)</sup> 광복절에 참배한 이유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 무장 투쟁의 백두혈통 계승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관광산업정책과 속도전

김정은은 평양에 위치한 문수물놀이장 건설을 지시하고 완공되기 까지 총 4번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다. 공정이 진행되면서 공사 책임자로부터 수시로 건설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새벽부터 현장을 찾은 경우도 두 차례나 있었다. 또한 물안경, 튜브 등 부대 장비까지 살펴볼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며 문수물놀이장 건설에 관심을 가졌다. 김정은은 물놀이장 건설에 힘을 쏟은 것은 “인민들이 하루 빨리 세상에 부럼 없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sup>75)</sup>임을 주장하였다. 김정은은 완공된 미림승마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지는 것이 당의 결심”<sup>76)</sup>이라며 인민들을 위한 위락시설 건설에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 7월 완공된 순안국제공항 1청사를 방문해 2청사 건설을 지시했으며 2014년 7월 초에도 같은 곳을 시찰했다.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하라고 한 자신의 지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관계자들을 질책하였다.<sup>77)</sup>

---

74)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참배 횟수는 6회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홀로서기 준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75) 『로동신문』, 2013년 10월 17일.

76) 『로동신문』, 2013년 10월 20일.

한편, 2012년 12월, 완공을 앞둔 마식령 스키장을 현지지도하였다. 12월의 강추위 속에서도 완공을 위해 고생하는 군인과 건설자들을 위로하면서 연내 완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sup>78)</sup> 마식령스키장은 김정은의 중점 사업인 원산관광특구의 핵심으로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하고 있다. 2013년의 마지막 날에도 김정은은 마식령호텔과 스키 서비스 시설 및 숙소 건물들을 점검하였으며 식당, 상점, 출판물판매소, 간이매대 등을 시찰하면서 준비과정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직접 리프트를 타고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매우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하루 빨리 스키장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을 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sup>79)</sup>

북한이 공개한 ‘원산~금강산지구총계획’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원산-금강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관광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시의 중심도로를 확장하고 원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연결하는 25km 도로를 현대적으로 개보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산과 금강산 사이에 90km의 고속 관광철도를 새로 건설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군 전용 공항이었던 갈마비행장을 원산 공항으로 새로 단장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80)</sup>

김정은의 관광산업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으로 대표되

---

77) 『연합뉴스』, 2014년 11월 1일.

78) 『로동신문』, 2013년 12월 15일.

79) 『로동신문』, 2013년 12월 31일.

80) 『조선신보』, 2015년 9월 22일.

<표 8> 김정은 현지지도의 공간상징성 2: 경제적 측면

방문지	빈도수		비고
마식령스키장	1년차(2012)	0	
	2년차(2013)	0	
	3년차(2014)	5	12월 완공
	4년차(2015)	0	
미림승마장	1년차(2012)	1	부지 시찰(11월)
	2년차(2013)	4	12월 완공
	3년차(2014)	0	
	4년차(2015)	0	
문수물놀이장	1년차(2012)	0	
	2년차(2013)	4	10월 완공
	3년차(2014)	0	
	4년차(2015)	0	
류경원	1년차(2012)	3	7월 완공, 11월 준공
	2년차(2013)	0	
	3년차(2014)	0	
	4년차(2015)	0	
순안국제공항	1년차(2012)	1	
	2년차(2013)	0	
	3년차(2014)	2	항공역사 건설
	4년차(2015)	3	2항공역사 건설

자료: 필자 작성.

는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관광산업시설 건설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식 관광산업정책에 기인한다. 북한은 평양관

광특구, 개성관광특구, 백두산관광특구, 원산관광특구, 칠보산관광특구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원산관광특구가 대표적인데 원산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식령스키장은 9개의 슬로프와 유럽풍의 호텔이 있다.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목상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임을 홍보하고 있지만 거주·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현실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전시성 사업이다. 또한 관광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관광 상품의 개발 및 홍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이 추진하는 관광정책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주의 선동방식인 ‘속도전’ 선전의 목적이다.<sup>81)</sup> 김정은은 마식령스키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마식령속도’라는 선전 용어를 만들어냈다. 어머니의 향수가 묻어있는 원산을 자신만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마식령스키장 건설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속도전’을 홍보하여 새로운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김일성(천리마속도)·김정일(희천속도)에 이어 새 시대에 김정은의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조선 속도’, ‘평양속도’를 창조해내자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점령 못 할 요새는 없으며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김정은의 혁명방식”<sup>82)</sup>은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와

---

81)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전을 통하여 인민동원사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천리마속도’로 선전하였고 김정일은 ‘희천속도’라는 구호를 만들어내어 인민들을 선동하였다.

82) 『로동신문』, 2014년 8월 6일.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었으며, 선전·선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은이 관광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자주 하는 이유는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치적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광산업의 성공을 통하여 최고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과 자원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에서 비교적 잘 보존되어온 자연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자신이 스위스 유학 시절 선진 관광산업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3) 과학기술우선정책과 엘리트 총성 유도

김정은은 평양에 과학자 전용 상점인 ‘미래상점’을 개장하여 과학자들의 처우 개선에 주력하는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체제의 과학자·기술자 우대 정책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관련자들을 초청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평양에 과학자 주택단지인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2013년 11월 13일에는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해 김정일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재확인하였다. 2013년 완공된 것으로 알려진 평양 외곽 지역의 ‘은하과학자거리’는 1000여 세대에 이르는 21개 호동의 다층 살림집(아파트)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등 공공건물들로 꾸러졌다. 또 아동공원, 소공원, 각종 편의봉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집권 2년차에는 과학자들을 위한 초고층 살림집 건설 현장인 평양 대성구역 룡흥네거리

<표 9> 김정은 현지지도의 공간상징성 3: 과학·기술 증시 정책적 측면

방문지	빈도수		비고
은하과학자거리	1년차(2012)	0	
	2년차(2013)	1	
	3년차(2014)	0	
	4년차(2015)	0	
미래과학자거리	1년차(2012)	0	
	2년차(2013)	0	
	3년차(2014)	0	
	4년차(2015)	2	
과학기술전당	1년차(2012)	0	
	2년차(2013)	0	
	3년차(2014)	1	
	4년차(2015)	1	
과학자 살림집	1년차(2012)	0	
	2년차(2013)	5	
	3년차(2014)	4	
	4년차(2015)	0	
연풍과학자휴양소	1년차(2012)	0	
	2년차(2013)	0	
	3년차(2014)	3	10월 완공
	4년차(2015)	0	

자료: 필자 작성.

를 방문하였다. 완공된 건물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과 연구사들에게 제공되며 이는 김정은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선전하였다. 김정은의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 현지시찰은 2013년에만 총 세 번이나 있었으며

김정은이 살림집 건설을 직접 지시하고 공정을 수시로 보고받았다.<sup>83)</sup> 이처럼 김정은이 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과학자·기술자들을 적극 우대해주어야 과학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높은 과학자들로 인하여 당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치켜세우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올 7월 김정은은 지난 2012년 9월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평양 채소과학연구소를 시찰하였다.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살림용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sup>84)</sup> 동년 동월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언급하며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sup>85)</sup> 한편, 올 초 2월에는 과학기술전당 건축현장을 시찰했다. 김정은은 과학기술 발전은 나라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며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전국가적 사업으로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하여 건설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500석 능력의 여관을 더 건설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평양정신·평양속도를 강조하면서 완공을 노동당 창건 70돌까지 마칠 것을 독려했다.<sup>86)</sup>

---

83) 『로동신문』, 2013년 10월 10일.

84) 『조선중앙통신』, 2015년 7월 7일.

85) 『로동신문』, 2015년 7월 3일.

86)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27일.

북한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김일성은 1952년 국가과학원과 196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김정일도 1982년 과학원을 국과위 산하에서 분리하고 정무원 직속부서로 격상하여 과학기술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였다. 김정은도 후계자로 지목되어 권력 전면에 나서기 전부터 미사일 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며 군 관련 과학기술분야에 지속적인 관여를 해왔다.

김정은은 과학기술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첫째, 과학기술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어 권력세습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국방 및 인민생활 향상을 주장하였다. 국방 분야는 물론 농업, 수산, 축산, 경공업 등 전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접목시켜 생산, 품질 향상을 실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은 전국에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부설 연구소를 잇달아 건설하여 과학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다.<sup>87)</sup> 김정은의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은 ‘지식경제강국’이다. 과학 중시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자신의 치적을 쌓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과거 김정일이 강조했던 과학기술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었다면 김정은의 과학기술정책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둘째, 정권유지를 위한 간부들의 충성 유인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김일성과 김정일도 과거 자신들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력층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김정은도 과학기술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권력에 충성하게끔 유인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

---

87) 북한은 평양에 은정과학지구를 신설하고 개성을 첨단기술개발구로 지정했다.

된다.

하지만 김정은식 과학기술정책의 성공가능성은 부정적이다. 과학 기술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재정 상황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괄목할 만한 과학기술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성장 동력인 에너지, 자금과 기술, 노동력의 질적 수준, 교육환경 등 총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대외 과학기술 교류협력, 적극적인 외자유치,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한 첨단과학기술인력 양성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기술개발이 대부분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김정은이 주장하는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성과가 과연 얼마나 주민생활 향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현재로서 김정은의 과학기술정책은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4) 애민적 지도자 이미지

2015년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집권 후 두 번째 연설을 하였다. 2012년 첫 번째 연설이 선대를 칭송하면서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자신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약 25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90여 회나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sup>88)</sup>라는 말로 끝맺는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애민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표 10> 김정은 현지지도의 공간상징성 4: 애민적 이미지 강조 측면

방문지	빈도수		비고	방문지	빈도수		비고
애육원· 육아원 양로원	1년차(2012)	0		송도원국제소 년아영소	1년차	0	
	2년차(2013)	0			2년차	2	
	3년차(2014)	5	평양 5회		3년차	4	
	4년차(2015)	6	평양 3회, 원산 3회		4년차	0	
류경구 강병원	1년차(2012)	0		체육 관련 시설 건설현장	1년차	3	11월 인민야외빙상장 준공
	2년차(2013)	2	9월 완공		2년차	6	9월 평양체육관 완공
	3년차(2014)	1			3년차	0	
	4년차(2015)	0			4년차	0	
옥류아 동병원	1년차(2012)	0		수산 관련 시설	1년차	0	
	2년차(2013)	2	10월 완공		2년차	0	
	3년차(2014)	1			3년차	0	
	4년차(2015)	0			4년차	9	

자료: 필자 작성.

구축을 통하여 대중으로부터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정치 목적은 현지지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말, 김정은은 평양시 동평양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대중목

88) 『로동신문』, 2015년 10월 10일.

육탕인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간부들과 함께 시찰하였다. 류경원의 바닥을 자세히 살펴본 김정은은 고급목재로 바닥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대중탕 욕조 온도를 직접 챙기는 세심함도 보였다고 한다. 이어 김정은은 인민야외빙상장을 방문하여 얼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빙상장 밖에서도 스케이트를 신고 다닐 수 있게 고무 깔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sup>89)</sup> 이처럼 김정은의 체육 관련 공개활동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다. 김정은 집권 후 성(省)과 정부 기관들의 후원을 통해 종목별로 체육을 지원하며 각 성·기관은 종목별 협회를 담당해 기자재와 선수 생활용품을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다. 2012년 11월에 평양에 인민야외빙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개장한 데 이어 2011년 5월에는 능라인민체육공원, 9월에는 평양체육관의 재건축을 마쳤다.<sup>90)</sup> 북한의 매체는 일제히 김정은의 ‘인민 사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로동신문』은 “빛나는 예지, 다심한 사랑”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선 편리성, 후 미확성’<sup>91)</sup>을 강조한 김정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의 ‘시대어’는 과거 선군정치에서 발전하여 주민의 지지와 호감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sup>92)</sup>

89) 『로동신문』, 2012년 11월 5일.

90) 『국민일보』, 2014년 10월 6일.

91) 2012년 5월 말 김정은이 평양 창전거리의 식당의자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 불편한 것을 지적하며 인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선 편리성, 후 미확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지시를 말한다. 북한은 이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세운 최고원칙’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92) 『로동신문』, 2012년 10월 25일.

2015년 6월 1일에는 국제아동절을 맞아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하였다. 김정은은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보육원을 직접 설계하였으며 건설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선전하며 보육 시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설물이라고 주장하였다.<sup>93)</sup> 『로동신문』은 서해어장에서 어획량이 늘어난 것을 김정은의 애민정신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선전한 바 있는데, 김정은은 최선을 다해 수산업을 발전시켜 군대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육아원 애육원의 아이들과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하루에 300그램씩 물고기를 먹이겠다고 공언하였다. 북한 언론은 서해의 수산물 대풍은 과학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사랑의 기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정은이 고아와 노인들을 위한 수산사업소 건설과 수산업 증산을 독려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정은을 ‘천만이 안기는 위대한 어머니’라고 칭송했다.<sup>94)</sup>

한편, 대동강에 위치한 자라양식장 현지지도의 자리에서 강도 높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전기·수도·설비문제를 핑계 삼아 2년이 지나도 완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였다.<sup>95)</sup> 북한의 언론매체가 최고지도자의 현지 지도를 보도할 때 질책성 발언을 대부분 기사에 언급한 일은 매우

93) 『조선중앙통신』, 2015년 6월 1일.

94) 『로동신문』, 2014년 6월 21일.

95) 『로동신문』, 2015년 5월 19일.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인민을 위한 일에는 더 엄격하게 간부를 독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9월에는 나선시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주민들이 지낼 새로 건설한 집을 먼저 돌아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찾아왔다고 소감을 밝히고 피해 복구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하여 인민들을 위한 지도자의 이미지 구축에 힘썼다.<sup>96)</sup>

국가는 흔히 가정과 비교되곤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덕목이 높다고 평가된다. 국민들 자식처럼 보살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잘 펴나가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애민적 통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온건적인 이미지 구축에 더욱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인민의 편익이 우선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시대어를 내놓고 ‘애민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해 비교적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이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민의 위하는 지도자’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북한 매체가 김정은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 비유한 것도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애육원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먹거리를 위하여 양식장을 방문하며 수해복구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은 당·군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평가되는 김정은이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하겠다.

---

96) 『로동신문』, 2015년 9월 18일.

## 6. 결론 및 시사점

미셸 푸코는 브로쉬에르와의 대담에서 권력은 마치 모세혈관 같은 것이어서 개별자에게 미치는 권력의 효과는 개인의 육체와 행동, 태도, 그들의 담화, 그리고 학습과정이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곳까지 미친다고 하였다.<sup>97)</sup> 푸코가 제시하는 권력의 사회적 육체화 개념은 북한 사회에 정확히 적용된다. 북한 최고지도자와 당의 권력 역시 인민 개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그 매개에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현지도도를 통한 상징정치는 북한 권력의 이념과 사상, 그들이 생산한 그들만의 역사를 전 인민에게 내재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김정일 후계체계 강화를 위해 김일성 혁명 전통이 고스란히 스며든 백두밀영을 조성했던 것처럼 3대 세습체제를 완성한 김정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하여 현지도도를 통한 상징정치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활발한 현지도도를 통해 이미지 구축과 상징정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의 현지도도가 국한된 지역에서 최소한의 빈도수를 보였다면, 이에 비해 김정은은 광범위한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인물들과 접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지도도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곳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은 체제의 상징공간을 자주 방문하여 정통성을 확보하

---

97) 콜린 고든,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홍성민 옮김(서울: 나남, 1991), 63~64쪽.

고자 하였다.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광장, 만수대언덕, 4·25 문화회관, 양강도의 백두산·삼지연 혁명전적지 등 선대의 역사와 체제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장소를 찾아 스스로를 백두혈통의 대를 잇는 유일한 적통자임을 강조하고 불안감을 불식하고자 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장성택 숙청을 앞두고 백두산혁명전적지를 방문하여 자신만이 유일한 지도자임을 강조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결단에 앞서 현지지도를 통한 무언의 상징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 평양과 백두산 등 전통적으로 북한 체제를 상징해온 공간들을 재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관광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은식 경제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속도전 및 상징공간이다. 정권 안정기를 거치고 집권 3년차부터 위락시설과 관광지역에 대한 현지지도가 현저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이 부족한 북한 현실에서 관광산업을 김정은체제의 주력사업으로 선정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외자 유치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광정책의 성공을 통하여 최고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같은 경제정책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회주의 선동방식 ‘속도전’은 김정은식으로 전환되어 ‘마식령속도’, ‘평양속도’ 등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각각 해당되는 지역인 원산과 평양에는 상징적 치적물, 위락시설이 다양하게 건설되었다. 특히 원산에 대한 정치·경제적 투자를 하는 것은 ‘제2의 고향’이자 생모를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며 친모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친모 우상화 작업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시설에 자주 방문하여 해당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3월 6일에 착공식을 한 후

7개월 뒤인 10월 10일 완공된 위성과학자거리는 김정은의 상징적 치적물 중 하나이다.<sup>98)</sup> 2014년 40여 일의 공백 후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위성과학자거리였던 만큼 김정은은 이 공간을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간주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의 가시적인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전환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고 엘리트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분석된다.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미래과학자거리는 조선인민군 제521건설사단이 건설에 투입되어 건설 속도에서 ‘평양속도’를 낚기도 하였다. 평양과 인근의 평성 등지로 집중되는 김정은의 과학 관련 공간은 하드웨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각종 상징들을 탄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상징공간은 애민적 지도자 이미지가 투영된 공간이다. 김정은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90여 회나 사용하여 인민을 위하는 애민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현지도의 장소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인민들과 스킨십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 이미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평양의 애육원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양식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나선지구의 수해복구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당과 군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평가되는 김정은이 아래로부터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다.

이렇듯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현지도를 자신만의 건강한

---

98) 조선중앙통신, “위성 과학자 거리는 우리 당의 과학 중시, 인재 중시 정책의 빛나는 결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10월 14일.

이미지 구축과 애민적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함과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이용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곧 정책으로 반영되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연일 북한이 공개하는 김정은의 현지지도의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지도의 시기와 공간을 분류하여 그 안에 담기 의미와 상징성을 찾아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담아내지 못했지만 혁명의 수도라 불리는 평양,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의 추억이 있는 원산 등 현지지도 동향을 공간적 상징성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집권 5년차를 앞둔 김정은의 광범위한 현지지도 행보에 담긴 미지(微旨)를 밝혀내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최선의 지표가 될 것이다.

■ 접수: 11월 15일 / 수정: 12월 5일 / 채택: 12월 15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 김정일, 『주체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523호(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총서 10: 영도예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_\_\_\_\_,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 2) 신문

-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  
을 가져 올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4월 27일.  
\_\_\_\_\_, “신년사,” 『로동신문』, 2015년 1월 1일.  
『로동신문』, 2001년 12월 17일.  
\_\_\_\_\_, 2001년 12월 21일.  
\_\_\_\_\_, 2012년 10월 25일.  
\_\_\_\_\_, 2012년 11월 5일.  
\_\_\_\_\_, 2013년 10월 10일.  
\_\_\_\_\_, 2013년 10월 17일.  
\_\_\_\_\_, 2013년 10월 20일.  
\_\_\_\_\_, 2013년 12월 11일.  
\_\_\_\_\_, 2013년 12월 15일.  
\_\_\_\_\_, 2013년 12월 31일.  
\_\_\_\_\_, 2014년 6월 21일.  
\_\_\_\_\_, 2014년 7월 11일.  
\_\_\_\_\_, 2014년 8월 6일.  
\_\_\_\_\_, 2014년 10월 31일.  
\_\_\_\_\_, 2015년 4월 19일.  
\_\_\_\_\_, 2015년 5월 19일.

\_\_\_\_\_, 2015년 9월 18일.  
\_\_\_\_\_, 2015년 9월 22일.  
\_\_\_\_\_, 2015년 9월 25일.  
\_\_\_\_\_, 2015년 10월 10일.  
\_\_\_\_\_, 2015년 11월 1일.  
『청년전위』, 2001년 11월 9일.

#### 4) 기타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8일.  
\_\_\_\_\_, 2014년 10월 14일.  
\_\_\_\_\_, 2015년 2월 27일.  
\_\_\_\_\_, 2015년 6월 1일.  
\_\_\_\_\_, 2015년 7월 7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고든, 콜린(Colin Gordon),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답』, 홍성민 옮김(서울: 나남, 1991).  
김진애, 『공간정치읽기』(서울: 서울포럼, 2008).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02).  
커밍스, 브루스(Bruce Cumings), 『김정일코드』, 남성욱 옮김(서울: 따뜻한손, 2004).  
하루키, 와다(和田春樹), 『북조선』, 서동만·남기정 옮김(서울: 돌베개, 2002).  
후지타니, 다카시(Takashi Fujitani),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한석정 옮김(서울: 이산, 2003).

### 2) 논문

남성욱,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가능한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2권 1호(2000).

- 손은하·공윤경, “상징 조형물과 상징공간에 이미지화된 지역성: 마산의 ‘민주화의 성지’와 ‘문학의 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제17권(2010).
- 유영구, “올해 상반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제 현지도의 특징은? 전국 현지도하며 ‘지식경제시대’ 강조 모범단위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 민족21, 『민족21』, 제150호(2013).
- 유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1994).
- 이종은, “상징과 정치적 권위,”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제17집 1호(2011).
- 임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성장과정 및 사상적 기반, 정당성, 리더십 특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동북아연구』, 제29권 1호(2014).
- 전상인·조은희·김미영, “북한의 수도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52권(2013).
-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2010).
- 정영철,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 ‘수령체계’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비평가학회, 『경제와 사회』, 제55권(2002).
- 조현수, “상징과 정치: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의 상징에 대한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19권 제3호(2010).
- 한국개발연구원 편집부,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에서 제시된 주요과업,”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제1권 제3호(1999).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홍민, “북한 ‘현지도’ 기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원논집』, 제14권(2001).
- 황재준, “북한의 현지도: 끝나지 않은 군중노선의 이상,”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제49권(2001).

3) 신문

『국민일보』, 2014년 10월 6일.

『연합뉴스』, 2013년 12월 26일.

\_\_\_\_\_, 2014년 11월 1일.

4) 기타 자료

『SBS뉴스』, 2014년 7월 8일.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 3. 국외 자료

1) 단행본

Beetham, D., *The Legitimation of Power* (Basingstoke: Macmillan, 1991).

Geertz, Clifford. *Negar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Gusfield, Joseph, *Symbolic Crusad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2) 논문

Medlicott, Carol, "Symbol and Sovereignty in North Korea," *SAS Review*, Vol. XXV, No.2(2005).

Merelman, Richard, "Learning and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eptember 60), 1966.

## North Korea's Symbolic Politics as Shown in Kim Jong Un's on-the-Spot-Guidance

Jung, Yoo Suk(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Kwak, Eun Kyung(Korea University)

Politicization of symbolism is prevalent in North Korea, practising the self-dubbed 'socialism in our own style'. In an effort to consolidate his power legitimacy, North Korea's Kim Il Sung has developed symbolic politics to define his revolutionary tradition, and his successors — Kim Jong Il and Kim Jong Un — have reproduced their own symbolic politic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political changes. Young leader Kim Jong Un is keen on establishing his image through active on-the-spot-guidance which he enthusiastically utilizes for his own politics. Kim Jong Un's on-the-spot-guidance is particularly distinctive in its wider coverage of geographical area where he makes contact with diverse individuals. He is making full use of his image of young leader to actively bestow on-the-spot-guidances upon his subjects. Also, he is seen frequently visiting places particularly related to his personally

driven policies.

The symbolism as shown through Kim Jong Un's on-the-spot-guida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ymbolic politics focused on securing his power legitimacy; second, symbolic politics in tourism policies and propaganda; third, symbolic politics prioritiz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fourth, symbolic politics through building a people-caring leadership image of Kim Jong Un. In order to make any estimation of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ymbolism hidden in its supreme leader's on-the-spot-guidance, which the state publicizes tirelessly through its media.

Keywords: on-the-spot-guidance, symbolic politics, symbolism of on-the-spot-guidance, Kim Jong Un's tourism policies,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